

필수 의료 해소 종합대책 마련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등 추진

남원시가 전북 동부권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그동안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분만·산후조리원·소아 진료 등의 필수 의료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원시는 도지사와 시장 공약사업으로 고죽동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41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이다. 해당 시설은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마사지실, 산모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2025년 9월 말 완공,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남원시에는 주간에 진료 가능한 소아과 의원과 병원이 4개소뿐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 전주나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원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 야간진료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필수 연계인 신생아 응급진료와 소아 야간 진료의 중심이 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 어린이병원'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정식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아 환자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남원시와 인근 지역의 소아 환자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 소아 응급의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야간 소아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365일 24시간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소아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 시간대 경증환자에게는 의약품 무약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과 인구감소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실태를 자체 분석, 이를 통해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막대한 노력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 반영이 되어 보건복지부 2025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안에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필수 의료 강화 패키지를 통해 남원의료영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365일 24시간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출렁다리를 건너 불어섬 생태공원에 들어간 유료 입장객 수도 비 오는 5일에는 3,287명, 6일에는 6,862명으로 총 1만149명을 기록, 이를 동안 관광에 따른 수익 또한 특목히 봤다.

특히 축제 첫날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에 옥정호 뱃꽃축제를 보기 위해 나온 인파들로 축제장 일대가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에 따라 치즈 판매 및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들도 덩달아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 임실N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은 축제 기간 5,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틀간 700만원 상당의 커피를 판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택 주민 주거복지 향상 기대

순창군, 임대주택 20호 공급 예정

순창군이 조성하는 북흥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로 다가오며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 문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5월 말 준공 예정인 북흥면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북흥면 공공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총사업비 47억 8,900만원이 투입된 이 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1,327㎡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이며, 7월 초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8㎡ 12세대와 39㎡ 8세대의 총 2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월 임대료는 58㎡는 15만 2천원, 39㎡는 10만 1천원으로 인근 시군보다 저렴하다.

특히 지역 내 임대 주택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무주택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흥면 공공주택은 면 소재지 내에 위치해 행정복지센터, 농협, 초등학교·중학교, 터미널, 보건지소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36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다자녀가구 및 농촌유학 가족 등이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공공주택팀) 또는 북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면 소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백련마을 주민들 순창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 주민들이 최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순창군 심조마을과 월곡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 마을은 지난 2023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마을로 2028년까지 국비 14억원 포함,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농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비슷한 여건의 마을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고 마을 주민 간의 갈등 해결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두 마을의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직접 설명 듣고, 이를 백련마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2025 임실방문의 해와 만나는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뱃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임실군, 옥정호 뱃꽃축제 성황

이틀간 3만5천여명 방문... 출렁다리 유료 관광객만 1만여명 넘어

2025 임실방문의 해와 만나는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뱃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군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옥정호 출렁다리 앞 광장에서 열린 2025 옥정호 뱃꽃축제를 찾아온 방문객은 3만5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출렁다리를 건너 불어섬 생태공원에 들어간 유료 입장객 수도 비 오는 5일에는 3,287명, 6일에는 6,862명으로 총 1만149명을 기록, 이를 동안 관광에 따른 수익 또한 특목히 봤다.

특히 축제 첫날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에 옥정호 뱃꽃축제를 보기 위해 나온 인파들로 축제장 일대가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에 따라 치즈 판매 및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들도 덩달아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 임실N치즈 및 유제품 매출액은 축제 기간 5,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틀간 700만원 상당의 커피를 판매했다.

여기에 운영된 생활개선회에 운영한 소머리국밥도 지난해 1,000여만원에서 올해는 1,760만원여치나 팔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된 치즈 호떡과 오뎀, 떡볶이, 닭꼬치 등 각종 먹거리도 둘째 날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함박웃음을 지었고, 인근 음식점 등 상권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재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장 구성, 대중적 인기 높은 초대 가수 및 노래자랑, 필봉농악 등의 공연, 차별화된 즐길거리 등 주최 측의 세심한 축제 준비도 효력을 받았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교통 대책 역시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군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임실군과 경찰서, 소방서 등이 협력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을 축제장에 빈틈없이 배치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심 민 군수는 "2025년 임실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옥정호 뱃꽃축제에 방문하신 모든 관광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며 "임실방문의 해 첫 번째로 열린 옥정호 뱃꽃축제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만큼, 올해 목표했던 내내 있는 카페에서도 이틀간 700만원 상당의 커피를 판매했다.

지역 소식통

임실군,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임실군이 이번 달 말까지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예방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최근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소각 예방단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예방단은 읍·면 현장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주민과 직접 대면해 계도 활동과 더불어 수시 마을방송을 통해 불법소각 예방 홍보 등도 실시 중이다.

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 및 계도 후,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재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 신규 모집

남원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14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명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남원시이고,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식품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 및 관련학과 졸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되면 △식품접객업 위생관리 상태 점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홍보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소비자로써 식품위생 행정에 참여하게되며, 관심이 있는 시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위생안전팀으로 본인 방문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또는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63-620-799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중앙투자 심사 통과

남원시는 시에서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부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 전에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남원시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곤충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식품·패푸드·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며,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남원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곤충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